

2008 새해설계 ⑤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회장 박춘식 목사

“교회가 앞장서서 도덕적 재무장해야 한다”

기독교인의 활동이나 삶에 대해 포천신문에 소개해야



2008년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회장 박춘식(57·사진)목사가 취임사로 밝힌 내용 중의 일부이다.

포천에는 250여개 교회와 3~4만명의 교인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포천시기독교연합회 주요활동은 ▶역임원 모임 ▶신년하례회 ▶지도자 세미나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경기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방문 환영 ▶경기북부총연합회 체육대회 ▶비전전략추진 ▶포천시 복음화 대회 ▶포천시 기독교인의 날 ▶이단대책 세미나 ▶김장환 목사 강연 참석 등이다.

포천시기독교 연합회는 기독교의 복음 선교를 위해 연합사업을 계획 실시하며 상호 협조 단결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포천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개신교 기독교회들로 구성하며 주요 교단은 기독교 대한교회, 순복음교단, 기독교한국침례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교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순복음교단, 기독교한국침례교, 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측),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측) 기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 목사는 “포천사회가 준법정신이 약하고 도덕적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교회가 앞장서서 계도하고 도덕적 재무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일치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목사는 교회가 각종 구제사업과 장학사업에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부정적인 측면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새터교회의 경우에도 1년에 2천만원 이상이 선교사 자녀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포천에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많다.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많다. 기독교연합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독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되 은근하게 긍정적인 부분은 감추어지고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되는 경우가 있어 이 점을 우리사회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포천시 기독교인이 가장 상당히 많다. 그들의 활동이나 삶에 대해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8년 포천시기독교연합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중경회장 ▶황진섭 목사 ▶임형국 목사 ▶김창성 목사 ▶한윤주 목사 ▶김익수 목사 ▶조승환 목사 ▶리승수 목사 ▶여종연 목사 ▶김경덕 목사 ▶박상호 목사 ▶노수우 목사 ▶권혁주 목사 ▶증경장로부회장 ▶홍일표 장로 ▶송영섭 장로 ▶박홍진 장로 ▶임석환 장로 ▶조병기 장로 ▶신석산 장로 ▶정규태 장로 ▶김일석 장로 ▶민선기 장로 ▶김두일 장로 ▶서정용 장로 ▶이인수 장로 ▶양정선 장로 ▶회장 박춘식 목사 ▶수석부회장 이성태 목사 ▶상임부회장 ▶박선서 목사 ▶박광원 목사 ▶최치선 장로 ▶수석총무 선우담 목사 ▶교단총무 ▶임창수 목사 ▶김영욱 목사 ▶정광진 목사 ▶공영광 목사 ▶장로총무 ▶윤준용 장로 ▶안영덕 장로 ▶연명홍 장로 ▶남창우 장로 ▶여성총무 ▶박은선 권사 ▶윤명순 권사 ▶최옥분 권사 ▶김신진 집사 ▶서기 김성환 목사 ▶부서기 이새호 목사 ▶회계 김정원 장로 ▶부회계 민인기 장로 ▶감사 ▶김상문 목사 ▶정사현 장로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사랑’

간단한 셈을 통해서 나와 너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도모하며,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싹틔우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한다.

첫째, 5-3=2이다. 이는 어떠한 오해(5)라도 세 번(3)을 거쳐 생각하면 이해(2)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무턱대고 신경질을 부리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 번만 고쳐 생각을 해 보자. 그러면 그 일이 이해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풀리게 될 것이다. 둘째, 2+2=4이다. 그 뜻은 이해(2)를 거듭(2)하다 보면 사랑(4)하는 마음도 생기기 그로 인해 감사(4)하는 정(情)도 우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영어로 ‘이해하다’는 단어가 ‘understand’이다. 이 말은 ‘밑

에(under) 선다(stand)’는 뜻이다. 사실 상대방의 입장이래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그만큼 쉬워질 것이다. 셋째, 4-2=2이다. 어떤 사실(4)도 두 번(2)부정당하면 이상(2)해 진다는 뜻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반대로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부정당하면 그만큼 기가 꺾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2-2=0이다. 이 셈의 뜻은 이해(2)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해(2)해주지 않으면 피차 무관심(0)해 지고 만다는 뜻이다. 서로 조금만 양

보하고 이해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한 쪽이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면 결국 상대방도 지치게 되고 그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은 메달라 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사랑으로 채우고 입이 선한 자 되어 격려하는 말을 내며 우리의 행동은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모습이 된다면 할 것 명랑하고 밝은 사회는 이룩될 것이다.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신다. 잠언서16장24절에서 “선한 말은 꿀솜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나”고

문의) 031-532-2489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③

토지 공유화의 강화



서익식 대성지역6기출판대행사

◆토지 공유화의 내용토지 공유화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권리를 위하여 토지 소유권의 공공성과 사회성에 의하여 제한하고 토지공유화규제에 의한 토지 사용의 제한, 토지 수용에 따른 토지 소유권의 강제적 징수, 공법적 개발 행위에 의한 지가 상승 등 개발 이익의 처리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 공유화는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정착된 제도로 영국의 경우 19세기 후반에 경제적 사상의 관점에서 토지 공유화론이 존 스튜어트 밀, 헨리 조지 등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영국은 토지 공유화론에 대하여 토지만을 공유화하지는 의견과 생산 수단까지 공유화하지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자의 토지 공유화론을 추진하였다. 그 내용은 토지를 매수하여 공유화를 추진하고, 불로소득으로 생긴 토지 지가에 대한 과세, 공유지의 사유화 배제 등이었다. 현재 영국의 토지 소유권 개념은 과거 영국의 토지 자원은 국왕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고 국민은 이용권만 있다는 사상에 의하여 개념적 소유권 보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 중심적 기능으로 되어 있다. 이는 법의 지배라는 전통적 권리 보장 이래 법률의 규정에서 제외하여 소유권 제한의 강화와

토지 공유화가 단행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되고 있다. 영국은 1975년에 제정된 토지공유화법(Community Land Act)에 의하여 토지공유화가 기획되었다. 서독의 경우에는 1960년에 제정된 연방건축법(Bundesbaugesetz)에 의하여 토지 수용 제도, 선택제 제도 및 구획 제도 등이 토지의 계획적 이용과 사적 토지 이용의 규제를 추진하면서 토지 공유화를 진행하였다. 서독은 사적 소유제도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토지의 공유화를 부인하면서도 재사유화 제도를 통하여 또는 공적 토지 취득을 강화하면서 공유화가 이면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국 서독은 사적 소유제도를 전제로 하면서 토지 질서의 종합적 계획적 발전을 위하여 공적 토지 취득법제의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토지 공유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토지 공유화는 국가와 사회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무조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적 소유 형태에서 오는 불합리 즉 소유의 독점성으로 인하여 공익적 사용의 침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합법적 절차와 보상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유화를 위한 사적 재산

권의 제한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공공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의 형식을 빌려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전 토지가 국가 소유이므로 법률의 제정이나 사유지에 대한 침해 없이 어떠한 토지 이용도 가능하다고 그러므로 토지의 국공유화론이 제기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남한은 사유 재산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남한 토지의 78% 이상이 사유지이다. 남한은 일제, 미군정, 남한의 초기 정부 이래 왜곡된 토지 소유 구조를 그대로 이어와 토지 편중 현상이 심하고, 토지의 국공유 면적이 협소하다. 이는 현대 국가의 행정 영역 증가로 요구되는 토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다. 다만 남한 헌법 규정과 토지수용법, 토지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토지 수용의 방법으로 이를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토지 수용시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은 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공적 토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토지 지가 안정과 토지의 신개념 도입을 통하여 공공의 수요의 토지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봉사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장학금 지원

영중농협 농촌사랑봉사단 제3기 정기총회에서 전달

영중농협 농촌사랑봉사단(단장 안남근)은 2월25일 영중농협 경제사업부에서 제3기 총회를 개최하고 1년동안 봉사활동으로 모은 수익금으로 30만원씩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 안남근 단장은 “지난 1년동안 회원여러분들이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노력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장학금을 받은 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촌사랑 봉사단은 우리사회의 소외 계층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및 교령의 농업인과의 사랑나눔 실천운동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소외계층의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모두 4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지난 1년동안 임직원의 지원금과 봉사단 소득사업으로 틀기부 200명 관매, 2007소득사업으로 두부, 행사 지원 등으로 얻은 수익금, 농협 임직원 지원금 등으로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남은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영중농협 농촌사랑봉사단은 2월25일 영중농협 경제사업부에서 제3기 총회를 개최하고 1년동안 봉사활동으로 모은 수익금으로 30만원씩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영중농협 농촌사랑봉사단은 회원간의 상호부조와 우의증진을 위한 사업과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한자를 위한 목욕 및 이미용봉사, 영중농협 원로 청년부 지원사업, 일손 부족 농가의 농촌일손 돕기 사업, 영중농협 농촌사랑 운동 참여, 봉사단 추진을 위한 소득사업, 교육지원사업,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기타 봉사단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詩

눈 내리던 밤

이 종실 주부영예기자단 이사

밤하늘은 어둡고  
저 먼지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지나칠때마다  
철-퍼덕 철-퍼덕

동리 들어오는 길목에  
바람만 불어도 새-앵 새앵  
소리만내던 앙상한가지만 남은  
밤나무위로 이월의 마지막 눈은

살포시 내려앉아  
도톰한 이불이되어 포근하게 덮어주네

오기는 발길위해  
외로히 서있는 가로등  
흰머리를 밝혀주고  
그 위로 하얗게 하얗게  
뿌리는 이월의 마지막눈이여

가로등 불빛 아래로  
투명한 빛을 내려 좌-르륵  
쏟아져 내리는 다이아몬드는  
얼어붙은 내 마음에  
포근하고 따뜻한 빛으로 다가오네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제28차 임원회의 개최 | 일시: 2008년 3월 11일(화) 12시 장소: 송우리 청정식당



- ▶고문 김인만 송중재 한희준 양주승
- ▶상임고문 최호열
- ▶명예고문 최종규 이병업 리효종 이동해 양재창 김창중
- ▶위원장 이보용
- ▶부위원장 박노현 윤중하
- ▶감사 이종희 이문환
- ▶총무 안병호
- ▶부총무 박운중
- ▶위원 조대행 김제동 윤중성 김중기 김정익 나근수 정호열 이희용 김성진 강경만 김정완 장동원 조복현 윤순옥 최윤섭 김창성 이윤우 이재인 남궁중 백한창 이관식 이미숙 정순호 김광우 정기용

포천신문 자문위원회는 포천신문이 지역정론지로 발전하는데 각 전문 분야별로 자문역할과 자문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각 전문분야별로 포천신문 발행에 자문사업
- 포천신문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연구
- 포천신문의 취재보도 및 부대사업 지원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 기타 포천신문 발전에 관한 사항